

조계사, 우정청과 '우리 문화' 알린다

11일 서울 우정청과 협약식... 문화상품 개발 등 추진



조계사와 서울 우정청은 7월 11일 우리문화 알리기 협약식을 맺고 상품 개발 등 사업을 펼친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과 이승재 서울우정청장.

서울 종로 조계사가 서울 우정청과 함께 우리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조계사(주지 도문)와 서울 우정청(청장 이승재)은 7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우리 문화 알리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이 맺어짐에 따라 조계사는 보유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를 최대한 공개해 방문객들이 관람·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우정청은 문화상품 개발 기법 및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우정총국 앞뜰에 전통놀이 체험마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승재 서울우정청장은 "서로 힘을 모

아 국내외에 우리 문화의 정수를 알리고, 나아가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의 특별함을 꼽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사동, 조계사와 우정총국, 경복궁 그리고 북촌마을을 아우르는 관광벨트가 세계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 후 서울 우정청에서는 각자의 발원을 적는 '엽서 쓰기' 이벤트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접수된 엽서들은 1년 후 같은 날(2014년 7월 11일)에 희망하는 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 연합캠프

7월 22~24일 아산 도고 일대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백일장과 음악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여성가족부장관상 등 상과 상품이 마련돼 파라미타 회원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린다. 파라미타는 "이번 캠프는 올바른 청소년문화의 방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는 친교의 장으로 마련됐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23-6165 이나은 기자

포교원 제7회 전문포교사 선발

19일까지 신행·문화예술·사회복지 3개 분야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9일까지 제7회 전문포교사 신청을 접수한다. 모집분야는 신행지도전문포교사(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직장직능, 군경교도소), 문화예술전문포교사, 사회복지전문포교사 등 3개다. 응시자격은 △일반포교사 3년 이상 활

동 △포교사 의무 이행 △조계종 디지털대학 포교사대학원과정 졸업 등이다. 응시 희망자는 19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에 응시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8월 말 합격이 발표되며 제18회 일반포교사 품수식과 함께 전문포교사 품수식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곳

원심회, 청각장애·수화 인지도 높이기 위해 진력

책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이에게는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 책은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인터넷 또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고 듣는 선지식 법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막처리가 돼있지 않을 뿐 더러 수화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어도 수화 없이는 참여가 힘들며, 도반과 신행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반드시 수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불교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인 수화로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조계사 원심회(회장 김장경)는 청각장애인들이 좀 더 수월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들에게 수화강좌를 상시 개설하고 있다. 수화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열고 있는 것.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수화 초급과정은 연 2회 3개월 과정으로 개강해 기초단어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강의하며, 지난 6월 65기가 수료를 했다. 현재 수화중급 41기를 7월 1일 개강해 매주 월·목요일 7시 30분부터 조계사 불교대학 지하법당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포교사가 된 김경환 원심회 부회장이 수화중급반을 가르치고 있으며, 병원·은행·공공기관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회화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지난 해 초급반 수료 후 중급반 과정을 듣는 문현경 씨는 "막연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수화강의를 듣게 됐는데 단순히 수화익힘으로 생각한 수화배우기가 아니라 수화로 의사소통하는 농아인의 언어와 농아인의 문화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돼 뜻 깊다"며 "특히 그동안 배운 수화로 매주 일요일 농아인과 함께 수화법회에 참가하



원심회는 매주 월·목요일 조계사 불교대학 지하법당에서 수화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환 원심회 부회장(사진 맨 오른쪽)이 중급반 학생들에게 수화를 가르치고 있다.

수화강의의 진행...천여명 수료 불교의식 수화동영상 제작중 11월 전국사찰에 무료 배포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돼야"

면서 그들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원심회는 1988년 설립 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화강좌를 진행해 1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가운데 일부는 사찰 또는 원심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며 청각장애와 수화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외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행사에서 통역 봉사를 하는 한편 각 단체나 학교 복지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외부 수학교육에도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 그러나 보통 전문적으로 수화를 표현해 내는 데만 10년 정도 걸리는 상황

에서 불교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키워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낮은 인식으로 이들을 지원할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한현명 원심회 부회장은 "수화통역사가 불교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자들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족한 상황이나마 회원들이 힘써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한자, 컴퓨터 같은 기초교육은 물론 바둑이나 요가 등의 여가 프로그램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또 지역단체나 학교 등에서 수화통역봉사와 수화공연을 열고,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한지연꽃을 제작, 판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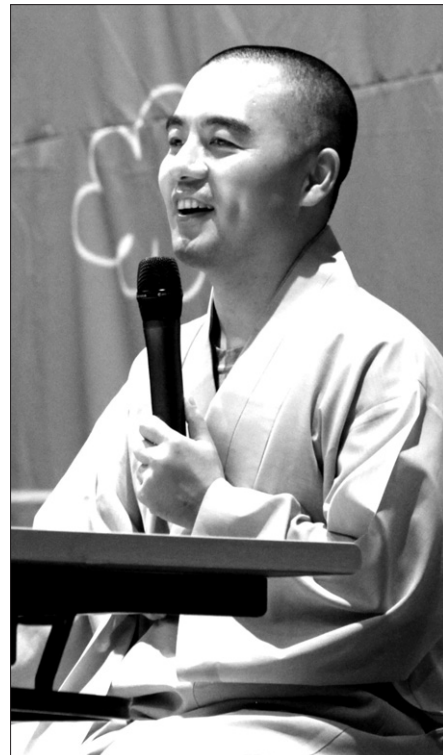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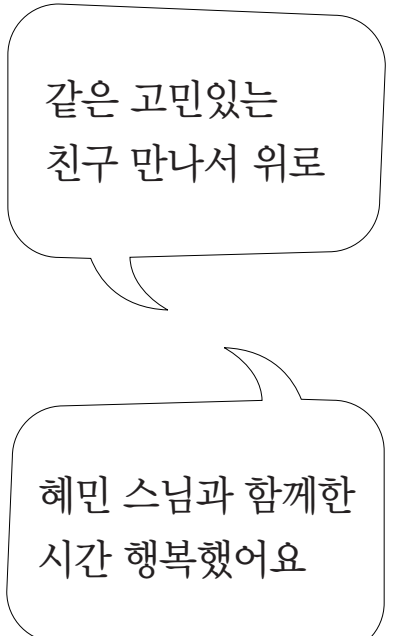
기도 한다. 현재 원심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불교수화 동영상 제작 사업이다. 청각장애인들이 불교의식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불교의식 및 불교관련 수화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 김장경 회장을 비롯해 김경환 부회장과 초등학교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본의식 △의식전반 △생활찬불가 등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원심회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생활에서 소외되는 청각장애인들이 불교의식 및 불교관련 수화동영상을 접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지가 포교원 장애인 전법단의 후원으로 동영상 제작하고 있다"며 "10~11월 경 동영상 완성되면 전국 사찰에 무료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2030청춘들 헤민 스님과 울고 웃다

문화사업단, 5~7일 마음치유 템플스테이

이 시대 청춘들의 멘토 헤민스님과 2030 청년들이 산사에서 뭉쳤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헤민 스님과 함께 하는 2030 마음치유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지난 4월 트위터를 잠시 중단한 헤민 스님과 일반인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로, 최근 취업문제와 경제난, 학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2030 세대를 위해 멘토링을 통한 건강한 청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첫 날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서' 감상을 시작으로, '헤민 스님의 행복' 문고 답하기, '이야기로 풀어오-대화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이 직면한 갈등과 고민을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

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운성 스님(진주 용화사), 혜장 스님(동국대 정각원)이 불교문화 소개와 다양한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2030세대로 인터넷을 통해 150명의 인원이 모였다. 이들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위로 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2박 3일간 헤민스님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 접하지 못한 견지 명상, 사찰음식 등을 접하며 진정한 마음치유의 시간을 보냈다"고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참가자들의 참가비는 (재)아름다운 동행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헤민 스님과 함께 하는 2030 마음치유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담화문

종법 질서를 유린하는 해중 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최근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 행위로 인해 종단의 위상과 화합승가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종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나 시정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1700여년의 한국불교의 역사와 가깝게는 50년 통합종단 출범 이래 피와 땀으로 일군 종단의 위계와 질서 그리고 종단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해중 행위입니다.

종단 구성원은 종법이 정한 질서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종법이 정한 시정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극적이고 현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폭로와 비방 행위는 일벌백계의 자제로 신속히 엄단할 것입니다.

특히 호법부는 일방적인 사정기관에 대한 각종 제소 행위, 언론을 통해 진행되는 무차별적인 제보 행위 등 외부의 힘을 빌려 종단의 자주권과 자율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강도 높게 엄단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해중 행위자로 간주하여 종법이 정한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에 회부할 것입니다.

종단은 그동안 수많은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수행풍토를 확립하고 청정승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종법 질서를 확립하고 해중 행위를 척결할 수 있도록 중도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7년 7월 11일

총무원 호법부장 정안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7월 24일까지

◆개강일시 :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0496